티벳불교·환경문제 '관심집중'

스위스서 열린 세계불교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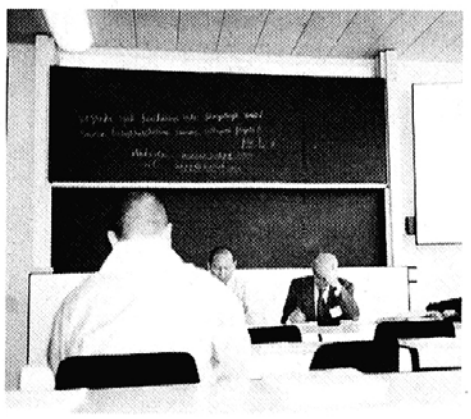
밀교문학등 20여분야
불교학자 200명 참석
현각·해주·현원스님 발표

국제불교학계가 주목하는 분야는 티벳불교와 생명·환경문제, 그리고 선(禪)이다. 이러한 경향은 8월23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로잔대학에서 열린 제12회 세계불교학술대회에서 드러났다.

국제불교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IABS)가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율장, 밀교 문학, 중유(中有), 아비달마, 불교 산스크리트어, 논리학과 인식론, 동아시아 불교, 서구의 불교, 초기불교, 대승경전, 전자불전, 불교논리학, 불교에서의 자연가치, 불교와 브라마니즘, 티벳과 네팔의 불교, 새로 발견된 초기 불전, 비로자나 숭배, 철학 등 20여개 분야에서 200여명의 불교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새로 발견된 불전' 분과에서 발표된 간다라지방에서 발견된 경전 주석서의 필사본. 3년전 영국 발굴팀이 발굴한 간다라어 경전주석서 필사본은 2~3세기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나 당시에 경전 주석서가 있었음을 알리는 소중한 자료로 밝혀졌다. 모두 두루마리 본으로 남아있는 필사본은 살로만 교수(워싱턴대)가 번역까지 완료해 단행본으로 선보였다.

현각스님(동국대)은 '철학' 분과에서 "깨달음은 애벌레가 누에고치로 있다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대단한 정신적 육체적 변화이고, 깨달음은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의 선적일고'를 발표해 인기를 끌었다. '동아시아불교' 분과에서는 해주스님(동국대)이 의상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되어 온 '일승법계도의 저자 문제'를 〈방산석경〉의 사료가치 등의 미비함을 들어 다시 한번 의상작이라고 못박았다. 현원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한국불교 유물의 역사적 의미'를 발표했다. 뮬러 교수(도요가쿠엔대)는 '원효의 이장의'에 대한 논문을 선보였다. 특히 뮬러 교수는 '전자불전' 분과에서 산스크리트어 한문 한글 영어로 이루어진 전자사전에 대한 자신의 사이트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반해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는 한국불교전서가 담긴 사이트를 시연했으나 대만의 디지털 도서관과 비교됐다는 지적이다.



◇6일간 계속된 세계불교학술대회는 5명이하의 분임토의 위주로 진행됐다. 사진은 철학분과. 제13회 학술대회는 2002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기가 많았던 분과는 '초기 대승불교와 대승불교경전', 인도불교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가장 많은 학자들이 참석해 삼매와 아라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여래장' 분과에서는 여래장이 불교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불교와 정토' 분과에서 싱가폴의 시 지루스님은 '지장보살과 정토왕생'에서 8세기에 지장신앙이 널리 성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율장 분과에서는 '팔리율장의 비구니 문제', '비구니 율장의 남녀차별주의' 등 비구니 관련 논의가 흥미롭게 벌어졌다.

현각스님은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세계학술대회에 나가 학문적인 성숙도를 보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불교 관련 서적의 영역화 작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학 강좌를 동국대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용성스님 선농불교는 대각교 운동"

대각사상硏 9일 대각회 창립30년 세미나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스님)은 9일 동국대 역암세미나실에서 대각회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 '백용성스님과 불교계의 노동문제-선농불교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용성스님의 선농불교 실천, 선불교에서의 노동문제, 율장에 나타난 노동금지계율, 현대의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고찰한다.

△백용성의 선농불교-김광식(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백용성은 1927년부터 10여년 간 경남 함양의 백운산과 중국 간도의 용정에서 화과원과 선농당을 설립하여 선농불교를 실천에 옮겼다. 선농불교는 중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대원각성(大圓覺性)을 깨우쳐 해탈인, 대자유인, 대각인이 되게 한다는 대각교운동의 전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론과 주장만이 아니라 계율의 회복을 강조하며 실천에 옮긴 점이 다른 주장과 차별되는 백용성의 선농불교는 일제하 선농불교의 효시로 사상 실천의 차원에서 식민지 불교 비판 극복과 함께 전개됐다. 백용성은 승려의 노농 실시, 농촌 계발과 불교의 진흥, 승려의 생활 개선, 반농반선 실시, 민중불교 지향의 입장에서 농업 농촌의 문제에 접근한 것이다.

△선불교의 노동문제-성본스님(동국대 교수): 백장청규에 의하면 대중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생산노동의 의무로 '보청법'을 제정하고 있다. 백장이 〈선원청규〉를 성문화하여 규정한 것은 사회로부터 받은 불경불직(不耕不織)의 비난에 대한 자구책임과 동시에 선종교단의 자급자족을 향한 경제 생활 확립을 위한 것이다. 백장이 주장한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은 선종교단의 숭고한 노동정신이다. 율원에서 독립한 선종교단의 자급자족하는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청이 좌선수행과 똑같은 차원에서 참선수행으로 전개된 것이다. 조사선불교에서 주장하는 선이란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본래심을 참구하는 참선생활로서 좌선, 선문답, 노동 등 일상생활을 전개하는 것이다.

△인도불교계율에 있어서의 노동문제-박경준(동국대 교수): 율장에서 농사나 장사와 같은 직업적인 생산 노동을 직접적으로 금하고 있는 계율은 찾아보기 어렵다. '땅을 파지 말라'는 조항이 있지만 이것은 땅 속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는 의미이다. 소승율장에 생산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생산노동을 금하고 있는 사의법(四依法)이 여러 계율조항에 우선하는 불문율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출가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과 노동은 출가자에게도 허용하는 불교의 전통은 시대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생산업즉시불법(資生產業卽是佛法)'이라는 〈법화경〉의 사상으로,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백장 청규로, 백용성스님의 선농일치(禪農一致) 운동으로 이어져 왔다.

△불교교리와 현대의 기업경영-유필화(성균관대 교수): 많이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부처님 말씀은 뛰어난 실행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 중생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풀어주듯이, 경영자도 고객이 있는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 부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수없이 강조하신다. 모든 기업은 이 가르침을 명심하고 좋은 기업 이미지, 창의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 학습하는 직장분위기 등 보이지 않는 자기자본을 꾸준히 쌓아가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으면 신분 직업 지위를 묻지 않고 가르침을 청하는 선재동자의 자세는 기업경영의 자세로 이어가야 한다.

강지연 기자

"문무왕 불교통해 국민화합"

신라문화硏 학술회의서 김복순씨 발표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는 8월30일 '신라 시대의 불교정책과 문무왕대의 통치정책'을 주제로 제18회 신라문화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문무왕의 불교정책'을 발표한 김복순씨(동국대)는 "문무왕은 대고구려 대당항쟁에 원효 명랑과 같은 고승들에게 자문을 받는등 불교가 국가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며 "통일 이후에는 백제 유민인 경흥(憬興)을 국사로 삼는등 새롭게 편입된 영토의 주민들을 불교로 회유하고자 했고 원효 의상의 아미타신앙과 같은 불교신앙을 통해 국민적 화합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조범환 박사는 '신라 하대 경문왕의 불교정책'을 통해 "중앙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불사 등을 통해 관심을 가졌던 경문왕은 진표 미륵신앙의 확산을 막고 황룡사 구층목탑 중수를 통한 화엄종의 재편을 추진하였다"며 "국사직을 선승에게 계속해서 분배함으로써 선종 불교에 대한 회유를 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제석신앙 등의 불교사상을 이용한 진평왕의 왕권강화책을 규명한 '진평왕대의 왕권강화와 제석신앙'(이정숙), 나원리사자 5층석탑등 경주 북부지역에 소재하는 9개의 중요 유적의 특징 등을 밝힌 '경주 북부지역 불적고'(황상주), 사천왕상 보살상 불상 등을 고찰한 '신라 문무왕대의 미술-조각과 금속공예'(최응천) 등이 발표됐다.

강지연 기자

학술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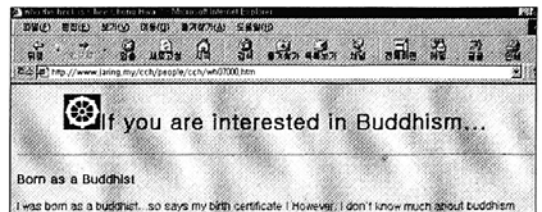
불교춘추 15호 발간

'의상대사'를 특집으로 다룬 〈불교춘추〉 15호가 최근 발간됐다.

역사인물탐구 의상법사 코너에서는 △해동화엄의 현장에서 들리는 화엄종조의 숨결 △의상의 법을 이은 10대 제자와 그 법손들 △의상 설화의 의미와 성격 △중국 종남산에서 일본 고산사까지 △의상의 화엄사상 △소리로 깨닫는 의상의 관음신앙 △신라 관세음신앙의 터전을 마련한 의상 △의상의 통일학 △21세기 기업경영 의상에게서 배워라 △'일승법계도'의 텍스트 문제 등을 담았다.

불교분과 월례발표회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위원장 해주)의 제5차 월례발표회가 11일 오후2시 원광대 숭산기념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월례발표회에서는 '관음도량과 해조음의 관계'(조용헌), '원효사상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후루시(福士慈稔)) 등이 발표된다. 논평은 이병욱 강사(고려대), 이창구 강사(전북대), 남동신 박사(서울대), 박태원 교수(울산대) 등이 맡았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말련 불교청년聯

말레이지아 청년불자 단합 이끌어
'다르마 캠프' 포교프로 정보제공

말레이지아 현대불교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단체가 바로 말레이지아불교청년연합회(이하 청년연합회). 인터넷에 개설된 청년연합회 사이트를 방문하면 역사와 활동 그리고 말레이지아 불교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970년에 발족된 이 단체는 말레이지아 전역에 걸쳐 청년불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청년연합회 회원은 고작 20명 안팎이었으나 요즘은 가입 회원이 2백35명이나 되며 말레이지아 불교계의 '행동대' 역할을 해내는 단체로 성장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청년연합회에서 말레이지아 불교가 대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며 개발하고 있는 '불교포교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말레이지아 불교포교, 교육, 공동체, 인본주의 함양, 지도자 훈련, 문화·출판·국제관계 연구 등 각종 불교사회운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청년연합회는 지혜, 자비, 감사의 사회를 건설하여 전 인류를 위한 정토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최후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단체는 말레이지아 불교 발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조직의 구성원들이 모두 말레이지아인들로서 국가에 대한 강한 애국심으로 똑같은 체계로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말레이지아와 같은 다인종 사회에서 회원들 모두가 참종교인으로서 잘 적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연합회는 말레이지아 불교를 발전시키고 재정적인 후원을 도모하기 위해 '야야산벨리아'라는 재단을 설립,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야야산벨리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야야산벨리아'는 말레이지아 불교 발전을 위해 청년연합회의 사회복지, 문화, 불교수련, 연구, 교육,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다종교 사회에서의 말레이지아 불교의 미래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말레이지아인들의 불교 소양을 높이기 위해 청년회에서 개발한 포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틴 하우사에서 진행된 '전국불자합동결혼식', 12월 국립학교교사를 위한 '다르마캠프', 올해 4월에 개최된 '종교훈련캠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말레이지아 청년불자의 정신적 지도자인 탄 키안 쿤의 강연초록도 열람 가능하다.

지난 한해동안 계속된 이 강연회에서 탄 키안 쿤은 △사회불의와 경제적 후퇴 △기아와 가난의 척결을 위한 공헌 △불교문화와 유산의 증진 △청년을 위한 불교의 평화와 조화사상 교육 등을 주제로 12회 강연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founder.net.ny/YBAM/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투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장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범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제 기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